

“전남체육 위상과 영광 되찾아 새 역사 개척하겠다”

“체육인이 주인이 되는 전남체육회를 만들겠습니다.” 송진호 제38대 전남도체육회장이 21일 무안 스키아워딩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소통과 화합을 축으로 체육인들과 함께 전남체육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체육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겠다’는 표지를 제시한 송 회장은 “전국체전을 성공 개최함으로써 전남체육의 옛 위상과 영광을 되찾겠다”면서 “국가대표급 우수 선수를 적극 발굴 확보하고, 전남에서도 우수 선수를 길러내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키워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2008년 제89회 전국체전 이후 15년 만에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전남도 방문의 해’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성공한 대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생활체육간 공정한 지원체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체육지원 기준안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확보, 신뢰할 수 있는 체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종목도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생활체육 행사, 각종 체육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확대해 생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취임

15년만의 전국체전 성공 개최 총력
전문·생활체육 공정 지원체계 확보
소통과 화합 축으로 기틀 다지고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회 만들 것

·전문체육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전남도민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건강한 전남도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체육지도자, 선수들의 복지·처우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전남체육인들의 자기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육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현실적 복지정책을 실현하겠다”며 “도민들을 위한, 도민들과 함께하는 체육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유관기관 등과 전국 소통해 전남체육의 기반을 강화해가게는 실천계획도 밝혔다.

그는 “전남체육회는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유관기관과 체육인들이 있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며 “시·군체육

회, 체육인 등과 적극 소통하고 목소리를 경청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행복하고 건강한 전남체육, 소통으로 나가는 전남체육’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당선인 시절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시·군 체육회협의회장단 부회장을 맡아 일하면서 스포츠 교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도체육회 차원에서 시·군 종목간 교류 계기를 마련하고, 각 시·군체육회 임원, 직원, 지도자 간의 교류를 통해 스포츠 균형발전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 회장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하는 전남체육”을 향해 힘껏 뛰겠다”면서 “전남체육인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전남체육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송진호 회장은 민선 1기 목포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제40대 남북체육교류 위원, 전남육상연맹 제1대 통합회장, 전남골프협회 부회장, 전남카누연맹 홍보이사, 목포시국제축구센터 건립위원, 축구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송 회장의 임기는 2027년 정기총회일 전까지 4년간이다.

한편, 취임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회장을 비롯해 22개 시·군체육회장, 각 종목단체 회장, 원로체육인, 체육지도자, 선수, 육성종목학교장, 스포츠클럽 등 체육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송진호 제38대 전남도체육회장이 21일 무안 스키아워딩홀에서 취임식을 열고 전남체육회 깃발을 흔들며 보이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조코비치, 그라프 넘어 테니스 최장 1위 앞뒤

남자 테니스 노바크 조코비치(36·세르비아)가 최장기간 세계랭킹 1위 타이 기록을 쓰며 여자 테니스 ‘전설’ 슈테피 그라프(54·독일)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번 주 세계 랭킹에서 조코비치는 1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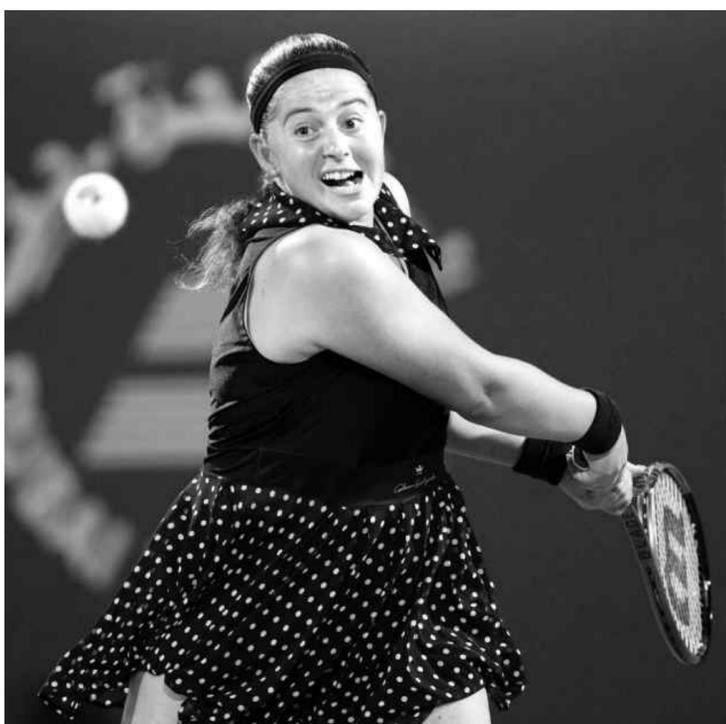
4주 연속 1위를 지킨 조코비치는 총 377주간 1위에 올라 종전까지 남녀를 통틀어 이 부문 1위였던 그라프와 동률을 이뤘다.

조코비치는 다음 주에도 정상에 지켜 378주 연속 1위라는 전인미답의 고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는 랭킹 포인트 6480점으로 7070점인 조코비치에 590점 뒤진다.

알카라스는 이번 주 리우오픈에 출전하는데, 이는 그가 지난해 우승했던 대회여서 올해 대회에서 우승해도 조코비치를 따라잡기는 어렵다.

테니스 랭킹포인트는 52주 동안만 효력이 있어, 알카라스가 지난해 리우오픈에서 따낸 랭킹포인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조코비치는 2011년 처음으로 1위에 올랐으며, 지난 1월 열린 호주오픈 단식 우승으로 7개월만에 1위에 복귀해 대기록 작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연합뉴스



온 힘 다해 백핸드 20일(현지시간) UAE에서 열린 두바이 듀티 프리 테니스 챔피언십에서 라트비아의 엘레나 오스타펜코가 우크라이나의 카타리나 자바츠키아를 상대로 강력한 백핸드를 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종오·이상화, 유스올림픽 공동조직위원장 선수 출신으로는 처음... ‘피겨퀸’ 김연아 집행위원 위촉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유스올림픽)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된 ‘사격 황제’ 진종오(왼쪽)와 ‘빙속 여제’ 이상화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기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출범식에서 마스크트 문초와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격 황제’ 진종오(44)와 ‘빙속 여제’ 이상화(34)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유스올림픽)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차 위원총회를 열고 진종오와 이상화를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뽑았다.

‘피겨퀸’ 김연아(33)는 집행위원으로 위촉돼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한국에서 개최된 각종 국제종합대회에서 선수 출신이 대회 최고 책임자인 조직위원장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종오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등 6개의 메달을 따내 금메달 4개, 은메달과 동메달 1개씩을 획득한 김수녕(양궁)과 함께 역대 한국인 올림픽 최다 메달 획득 기록을 보유했다.

하계올림픽 스타 진종오와 함께 조직위원회를 이끌어갈 공동 위원장은 ‘동계올림픽의 영웅’ 이상화다.



집행위원에 위촉된 김연아.

현역 시절 스피드스케이팅 세계 최고 스프린터로 활약한 이상화는 2010년 밴쿠버 여자 500m 금메달,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여자 500m 금메달, 2018년 평창 여자 500m 은메달을 따냈다.

여기에 올림픽 여자 피겨 스케이팅 2010년 밴쿠버 금메달, 2014년 소치 은메달을 딴 ‘겨울 스포츠의 아이콘’ 김연아가 홍보대사로 나서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을 돕는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 등 4개 도시에서 14일 동안 열린다. /연합뉴스

파리 향해... 브레이킹 대표팀 월드시리즈 출격

올림픽 출전 위한 본격 여정 시작

한국 브레이킹 국가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을 위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한다.

21일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KDF)에 따르면 브레이킹 대표팀은 24~25일 일본 기타큐슈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세계댄스스포츠연맹(WDSF) 브레이킹 월드시리즈’ 일본대회에 출전한다.

지난해 11월 2022 브레이킹K 파이널 대회에서

을 시전 국가대표로 선발된 비보이 김현우(Wing), 박인수(KILL), 비걸 전지예(Freshbella), 권성희(Starry)와 상비군인 김종호(Leon), 김예리(Yell)까지 총 6명이 태극마크를 달고 23일 출국한다.

브레이킹 월드시리즈는 WDSF가 주관하는 대회 중 가장 높은 랭킹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대회로, 국가별로 남녀 각각 최대 3명씩 출전할 수 있다.

올해 일본 기타큐슈에서 첫 포문을 열고, 4월에

는 브라질, 8월 포르투갈, 12월 홍콩에서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일본 대회 첫날에는 예선과 64강~16강 경기가, 25일에는 8강~결승전이 열린다.

예선은 오디션 방식으로, 64강과 32강은 2라운드의 1대1 경기로 진행되며, 16강은 4개 조로 구성된 조별리그로 펼쳐진다.

각 조 1, 2위가 8강에 진출해 2라운드의 1대1 경기를 치르고, 4강부터 결승까지는 3라운드의 1대1 경기로 대결한다.

파리 올림픽 출전을 위해 랭킹 포인트가 필요한 만큼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댄스 배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내가 떨어뜨린 푸른 하늘
- 2관 서치 2
- 3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 4관 카운트
- 5관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니아
- 6관 서치 2
- 9관 카운트, TAR 타르, 교섭
- 7관 씨네커플 더 퍼스트 슬램덩크, 상간니, 메간
- 8관 씨네커플 에메이징 모리스, 영웅,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람이 사라진다 해도, 살수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2023-02-01(수) ~ 2023-02-26(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379/8372

광주시립국악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062-526-0363